

P  
205  
7339  
2025/1

# 高麗神學報

第25輯



고신대학교

高麗神學大學院



EM00111310

# 高麗神學報

## 목 차

第25輯

1980年 12月 1日 創刊

1993

간행사 / 4  
머리말 / 6

허순길  
이상영

### 기획 1. 기독교 윤리의 현대적 적용

칼빈의 가난의 신학과 윤리 / 8  
희년의 윤리 / 28  
통일 한국에서 희년법의 위치 / 44

신원하  
신득일  
최영우

### 학생논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 62  
이혼에 관한 성경적 고찰 / 120

김은수  
기동연

### 기획 2. 나의 설교론과 설교 한편 / 167

현유광  
정주채  
김기태

### 서평

자크 엘륄의 『뒤틀려진 기독교』 / 199

조용수

머리말

허순길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원장)

“선포가 없는 신학은 공허하고, 신학이 없는 선포는 장님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신학과 설교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신학은 본질적으로 설교를 위해 존재한다. 신학이 학문적인 울 안에서만 머문다면 사변으로만 끝나버리고 말 것이며, 그 본질적인 가치를 잃게 되고 말 것이다.

설교자는 성경전체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설교자는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설교자는 택한 설교 본문을 계시된 진리의 전체속에서 이해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신학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상당한 수의 신학도들이 신학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중한 입장 을 취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된다. 신학의 과정을 설교자의 자격을 얻는 하 나의 방편으로만 여기고, 신학과 설교의 관계를 무관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 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신학이 없는 설교는 청중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없다. 신학을 무시한  
자의 설교는 양떼를 방향을 분별할 수 없는 광야 한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것과 같다. 신학도는 올바른 설교자가 되기 위하여 신학을 해야 한다. 신학  
과 설교의 분리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목회 현장에 이런 현  
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별히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교회속에 심각  
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하  
는 대신 기복신앙을 전함으로 이행득의(以行得義)의 생활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혁주의 교회안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에  
기반한 감사의 생활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려신학대학원은 일찌기 개혁주의 신학을 갖춘 말씀의 종들을 양육하기 위해 세워진 기관이다. 이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연구하는 신학이 교회강단과 언제나 직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여기에 실린 신학연구의 결과들이 주님의 교회의 강단에서 이롭다운 결실을 맺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권 두 언

이상영  
(고려신학보 편집장)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외침이였음 한다.  
당나귀 귀처럼 커다란 임금님의 귀를 보고도 얘기할 수 없게 된 임금님의  
이발사는 참다 참다 못해 대나무 밭에 땅을 파고 거기에다 소릴 지른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것의 속터져 나옴.  
내가 발견한 비밀을 두고 참을래야 참을 수 없어서 결국 말하게 되는 것  
그게 설교이다.

허나 우리는 너무 쫓기고 있다.  
그리고 즉흥적이다.  
기슴에 담기엔 너무도 벽찬,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무엇이 차우르  
기 전,  
우리는 강단에 서야 하고 말해야 할 때가 많다.  
성경과 현실 속에서 우린 다른 이가 보지 못한 임금님의 당나귀 귀를 보아야  
한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  
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  
이다(렘 20:9)”.

예레미야의 고백이 가슴 저미도록 새롭다. **고려신학보**

## 칼빈의 가난의 신학과 윤리

신 원 하  
(교수·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I. 서 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란 말과 주제는 이제 더 이상 신학도들에게 낯선 용어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는 이미 1970년대 이후로 기독교회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실천적 주제로 자리잡아 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남미 해방신학이 북미를 포함한 제 1세계 신학계에 미친 영향은 엄청난 것이었는데 그 여파로 제 1세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신학계와 교회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신학적, 실천적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즉 8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는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그룹뿐만 아니라 복음주의 신학계에서도 개신교이전 로마카톨릭이전 간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신학적, 실천적인 관심이 증진되고 있다.<sup>1)</sup> 그러나 기독교회들이 특히 근자에 들어서 빈곤과 가난한 자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관심은 이미 교회 역사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있어 온 것이다. 이미 기독교회들은 역사적으로 가난이라는 주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었고 실제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역을 해 왔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종교개혁의 시기에 이미 투터나 칼빈과 같은 개혁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음을 보게 된다.

오늘날 교회들이 가난한 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 대한 목회사역에 눈을 돌리려는 생각을 갖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이 사역을 위해 우선 탄탄한 신학적 토대와 아울러 효율적인 실천을 위해서 동일시하고 배울만한 모델이 함께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종교개혁가들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신학과 목회적 사역을 연구해 보는 것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대의 교회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한다.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회 회장을 지낸바 있는 막스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 교수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이전의 신학자들의 신학과 교회들의 사역에서 중요한 실천적 통찰력과 윤리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

고 하였다.<sup>2)</sup> 본인은 이를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실제적으로—목회자로서 위정자로서—괄목할 만한 사역을 한 종교개혁가 칼빈의 신학과 사역을 한번 연구해보자 하는데, 칼빈이 가난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신학과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에 대해 행했던 사역을 연구해 보는 것이 오늘 현대의 기독교회들이 가난한 자에 대한 윤리적인 관심을 높이고 또 이를 위한 신학적인 원리(principle)와 실천(praxis)을 위한 방안을 세우는데 홀륭한 자료와 교훈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글은 바로 이같은 목적하에 쓰여진다. 이 글의 범위는 무엇보다 오직 칼빈의 신학과 사역에 한해서만 초점이 모아질 것이고 어떤 다른 신학자들의 경우와, 예를 들면 해방신학자들의 그것들과 비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이 논고의 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글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부분은 칼빈의 가난의 신학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둘째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칼빈의 실제적인 목회와 사역에 대해 역사적인 연구를 하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에 대한 칼빈의 신학과 윤리를 평가하고 이어 칼빈의 가난의 신학과 사역에 대한 윤리적 의미를 오늘 현대 칼빈주의 교회들과 관련해서 비판적으로 반성해 보고자 한다.

### II. 칼빈의 가난의 신학

#### A.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가난한 자에 대한 칼빈의 관심은 그의 인간관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인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창 1:27)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같이 인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다.<sup>3)</sup>

칼빈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야 말로 우리들이 이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결정케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도 근간이 되는 진리라고 생각했다. 즉 우리들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는 그들이 어떤 사회적인 위치와 능력과 도덕성을 지니고 있건간에, 그러한 외적인 요소이전에 무엇보다도 그들이 우리가 마땅히 존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러한 인간임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sup>4)</sup>

칼빈에게 있어서 한가지 분명한 진리는 인간은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진리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대하시기

에 만약 어느 사람이 다른 인간들의 잔인성과 사악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신음을 하게 된다면 그 고통당하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 당신이 직접 함께 깊은 상처를 받으시고 아파하시고 고통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였다.<sup>5)</sup>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서,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는 즉각 하나님을 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졌다.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의 기반과 지평에서 그는 인간의 가난과 고통을 이해하고자 했다. 즉 칼빈은 인간이 겪는 그 빈곤과 가난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깊이 근심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신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고통과 함께 신음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 묘사하면서 피조물인 인간의 고통을 조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고통속에 몰아 넣는 일이라는 것이다.<sup>6)</sup>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우리가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반드시 우리는 다른 사람 이란 거울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만 한다고 주장한다.<sup>7)</sup> 칼빈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한 육체와 한 본성에 속해 있는 단일성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전 인류는 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고 모두 이웃들이다. 따라서 칼빈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은 창조의 중요한 질서를 결정지어 주는 것이다. 즉 모든 인류가 교제의 거룩한 고리로 연합되었다는 것이며 그러기에 서로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sup>8)</sup> 칼빈의 이와 같은 인간관은 그의 가난에 대한 신학의 구조을 구성하는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부자와 가난한 자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설명할 때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된다.

### B. 하나님의 신비로서의 가난

칼빈은 물질적인 축복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풍요 그 자체가 경건한 삶을 산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든지 또는 개인적인 선행과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의 표시라고 여기지는 않았다. 더욱이 칼빈은 빈곤 그 자체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증거라고는 더욱 생각하지 않았다.<sup>9)</sup>

또 한편으로 칼빈은 빈곤 그 자체가 어떤 본유적인 가치를 소유한다는 그러한 생각에 추호의 동의도 하지 않았다. 이점에 있어서 그는 중세 사람들의 일반적인 가난에 대한 생각과는 케를 달리하였다.

칼빈은 자발적인 청빈과 가난의 사상을 강조하면서 종교적으로 빈곤을 고양시키고 가난을 친양하는 중세적인 입장과 태도에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가난이 어떠한 성격과 특성을 지니고 있든지 간에 가난과 빈곤은 우리 주위에 항상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인간 사회에 존재할 것이다. “너희에게는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신 15: 11의 구절은 가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구절이다. 예수께서도 요 12: 8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하신 바 있다.<sup>10)</sup> 그러나 칼빈은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꾀상적이고 숙명적으로 이해하기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숙명론적인 가난에 대한 이해는 자칫 잘못하면 현 사회체제의 현상유지(status quo)를 옹호하는 이론적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칼빈은 이와 달리 가난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신비스러운 방법을 가리켜주는 그러한 지침 계로 이해하고자 한다.<sup>11)</sup> 왜 하나님께서 빈곤을 인간들에게 존재케 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께서 가난한자 부자 모두에게 그의 특별한 교훈을 주시고 교육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민 15: 11 - 14에 대한 강론에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교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단지 운(fortune)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후의와 친절을 깊이 살펴보기 위해 이 세상의 재화들을 불공평하게 분배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시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한 수단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가 관대한지 아닌지를 알아 보는데 있어서 이 재화는 좋은 증거가 될 것이다. 다른 가난한 사람의 경우 비록 그가 고통을 받고 있고 그가 힘든 상태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악하고 그릇된 방법을 사용해서 힘든 상황을 넘기려 하기보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이경우에 있어서 가난은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믿음을 시험하는데 참으로 훌륭하고 유용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sup>12)</sup>

특별히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부서지지 아니하는 정금과 같이 단단한 그러한 수준의 신앙을 요구하시고, 부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하게 지음받은 그의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관대함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베풀려하고 사랑에 의한 구제의 마음이 있는지를 테스트하신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수중에 베풀 능력이 있을 때 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되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나 교만함으로 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겸손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테스트라 아니할 수 없다.<sup>13)</sup>

그러므로 부와 가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인간편에서는 신앙을 증명해 주는 좋은 수단이 된다. 물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빈곤을 즉각 제거하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해 보시고 굳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중세기에 이르는 시대까지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자들에게 선행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과제로써 이 가난을 이상화했고, 또 한편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데 좋은 조건이 되는 것으로 가난을 이상화하였다.<sup>14)</sup> 이같은 점에 있어서 칼빈은 비록 가난이 구원의 수단이나 또는 성화의 수단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가난을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교육수단으로 말하고 있는 점에서, 칼빈의 가난에 대한 이해와 가르침은 고대 기독교적인 사상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C. 맞서 싸워야 할 빈곤

칼빈이 가난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교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는 결코 가난 그 자체를 덕목으로 간주하거나 미화하지는 않았다. 칼빈은 빈곤이란 인간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인간 세상에서 퇴치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그는 빈곤을 조장했던 탁발행위를 신랄히 비판했다. 그는 구걸을 일종의 게으름으로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뜻을 거스리는 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악으로 생각했다.<sup>15)</sup>

칼빈은 빈곤을 인간사회로부터 추방하고 제거하기 위해 인류의 연대성 (Solidarity)에 호소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받은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느끼게 된다면 어떤 사람들은 과도히 누리며 사는데 어떤이는 편절한 채로 살게 방치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면서 이런 일은 결코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하였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서로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녀야하고,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부자들은 자기들의 재산이 많지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자기들 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데 사용하여야 되는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아 관리하고 그 것으로 이웃을 위하고 돋는데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이다.<sup>16)</sup> 칼빈은 고용한 노동자에게 정당한 삶을 지불하지 않는 부자 사용주를 가리켜 “살인자, 포악한 짐승, 가난한 자를 물어 뜯어 그들의 피를 마시는 자”라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묘사하면서 혹독한 비판을 서슴치 않고 있다.<sup>17)</sup>

칼빈은 그의 고린도후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받았거나 자신의 자산과 노동으로 벌었든지 간에 부를 많이 소유한 자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재산 외 남는 재산을 무질재하게 사용하거나 사치하게 써서는 안되고 다른 궁핍한 형제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의 빈곤을 들어주는데 사용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sup>18)</sup>

계속되는 이러한 글은 칼빈의 생각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 주는데, 칼빈은 빈곤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이웃의 괴로움을 완화시키는데 우리의 부가 사용되어져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칼빈은 가난한 자들을 돋는 주된 동기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궁핍한 상태에 있는 형제의 비참함에 대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연민의 감정이 없이는 그 어떠한 도움의 행위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칼빈은 강조한다. 그러므로 칼빈은 ‘사랑의 원리’가 가난한 사람을 돋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sup>19)</sup>

그러나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반대하였다. 몇몇 급진적인 재세례파들의 마태복음 19: 16~26과 사도행전 2: 41~45의 해석을 검토하면서 칼빈은 그 부분들을 그들과 달리 해석한다. 부자청년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마 19: 16)”라는 질문에 응답하면서 주님은 “네가 온전해 지려고 하면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칼빈의 해석을 따르면,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온전해 지는 것’에 대한 해석은 모든 소유를 파는 데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sup>20)</sup> 오히려 예수님의 답변의 의도는 부자청년이 그 자신의 선행에 대해 갖는 확신이 얼마나 눈이 면 것이었는지를 밝혀 드러내어 보게 함으로 자신이 결코 구원얻을 만한 선행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즉 그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자각하게 되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려 하심에 있었다는 것이다.<sup>21)</sup>

이와 아울러 칼빈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기독교회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상황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었던 극심한 가난과 가난한 자들을 돋기 위해 취해졌던 일시적인 조치에 대한 것이고 그것이 결코 그리스도인 경제원리의 모델과 표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sup>22)</sup> 그러므로 칼빈은 개개인의 사유 재산의 권리를 결코 부정하지 않았다.

가난에 대한 칼빈의 신학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칼빈의 인간관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로서의 인간에 대한 그의 신학적인 이해가 주근간을 이루고 있다. 비록 가난이 하나님의 교육의 도구로써 사용된다는 것을 인정

하고 있지만, 그는 가난 자체를 결코 이상화하지 않았고 오히려 인간들이 힘을 합쳐서 인간 사회에서 퇴치해야 할 것으로 믿었다. 바로 이런 신념이 그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을 돋기 위해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제도화하여서까지 가난한 자들을 위해 혼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III. 가난한 자에 대한 칼빈의 사역

1540년대를 전후하여 로마 카톨릭교의 박해를 피하여 많은 망명자들이 제네바로 옮겨옴에 따라 사회적 상황은 급속히 변화되었다. 사회적으로 빈곤이 베태하기 시작했고 가난한 사람이 속출하기 시작하였다. 칼빈은 이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처해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같은 나쁜 상황과 싸워나가기 위해 칼빈은 일련의 기구와 조직들을 세우게 되었다.

사람들의 사회복지에 관한 한은 정부가 공익(the common good)의 보호를 위해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게 칼빈의 주장이었다. 정부가 해야 할 일들 중의 중요한 것 하나는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보유할 수 있도록” 만들 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정직과 단아함이 유지되도록” 보살피고 돌보는 일이라고 칼빈은 생각했다.<sup>23)</sup> 이러한 칼빈의 가난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정부의 임무와 과제에 대한 이해는 개인적 차원의 자선행위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국가적 차원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지정책을 세워서 빈민구제를 위한 정치와 실제적인 목회사역을 하게 되었다.

#### A. 종합 구호원(The General Hospital)

당시의 종합구호원은 현재의 ‘병원’과는 달리 그 기능에 있어서 훨씬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종합구호원은 빈곤에 처해 있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도우는 기관이었다.<sup>24)</sup> 종합구호원은 단지 환자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처, 의료진료,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일도 했다. 종합구호원은 전지역을 통해 가난한 사람에게 일주일에 한번씩 식량을 배급했었고 이제 막 제네바에 도착하여 숙박료를 낼 수 없는 방문객들에게 숙박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또 저녁마다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였다.<sup>25)</sup>

제네바의 종합구호원은 종교개혁이 몰고 온 하나의 산물이었다. 종교개혁 전의 제네바에는 일곱개의 작은 병원들이 있었다. 각각의 병원들은 그 일들의 강조점에 있어서 약간씩 달랐다. 즉 환자를 돌보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들을 주로 돌보는 병원이 있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시작되자 시의회는 모든 병원들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어 1535년에는 교회의 재

산과 부동산의 수입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새로운 포괄적인 병원 즉 종합구호원을 설립하였다.<sup>26)</sup> 그때부터 종합구호원은 병자와 노인, 과부들 그리고 고아들을 위한 구제의 중심 기관이 되었다.

종합구호원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집사들(procureurs)과 봉사집사들(hospitallers)이 임명되었다. 이같은 두 분류의 봉사자들은 원래 일곱병원에서부터 일해 왔었다. 그들은 모두 성직자들이 아닌 평신도들이었다. 칼빈은 그의 “신학논문집(Theological Treatises)에서 그들의 직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들의 임무는 공공병원이 잘 운영되도록 부지런히 돌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병자나 일할 수 없는 노인들 과부들 고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sup>27)</sup>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 관리집사들의 일은 봉사집사들과는 구분이 되었다. 봉사자들은 온종일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만 볼보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과 농작물, 소떼들, 말들, 그밖의 다른 가축들까지도 돌보았다. 이 일 외에도 방직, 구호원에서의 주물 제작까지도 관여했었다.<sup>28)</sup> 이와는 달리 관리집사들은 봉사집사들이 매주 한 일들에 대해 보고하는 것을 듣고 필요한 물품의 요청이 있으면 자세히 검토하고, 승인하고 봉사집사들이 가난한 자들을 효과적으로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돋는 일을 하였다. 특히 그들은 종합구호원에 관한 모든 법적인 계약등 법적인 사항들을 처리하는 일을 도맡아 하였다. 달리 말하자면 관리집사들은 구호원을 잘 운영하고 관리하는 행정직을 맡은 자들인 것이다.<sup>29)</sup> 비록 종합구호원을 칼빈이 창설하지는 않았지만 칼빈이 1537년 제네바에 온 이후로 그는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의 제도를 광범하게 발전시켰다.

칼빈은 이 종합구호원이 국가에 의해 운영되어져야 하되 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교회가 목회적 사역과 봉사의 한 차원으로 교회에 속한 집사들(deacons)의 인적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30)</sup> 관리집사들(procureurs)나 봉사자들(hospitallers)을 교회의 집사들(deacons)로 세우면서, 칼빈은 기독교회의 종합구호원을 교회의 사회봉사의 사명과 연관시켰다. 게다가 칼빈은 이같은 가난한 자들 돋는 일을 구호원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각 가정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도 확대시켰다.<sup>31)</sup> 이러한 방법으로 칼빈이 제네바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동안 가난한 사람의 구제를 위한 이 기구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B. 집사직(The Diaconate)

칼빈은 집사의 두드러지는 직무는 사제들의 직무와 비교할 때 가난한 자들에 대해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집사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이 집사직 자체의 직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사명으로 알고 감당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칼빈의 집사직에 대한 개념은 무엇보다 그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연관되어 있는 점이 특징인데 이것은 교회의 사회참여 즉 사회봉사와 윤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32)</sup>

1541년 제네바 교회법령(*In the Geneva Church Ordinances*)에서 집사의 기능과 직무와 기원을 설명하면서 칼빈은 2종류의 집사직을 나누어 설명했는데, 첫째는 교회자산, 기부금, 임차, 연금등을 운영하는 직분이고, 둘째는 직접적으로 가난한 자를 살피고 병자나 고아를 살피는 직분이었다. 기독교강요에서 집사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칼빈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은 집사들에게 맡겨졌다. 그러나 집사를 위한 두 종류의 일이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혹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로마서 12:8].

바울이 교회의 공적인 직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에, 이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두 직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내 판단이 틀리지 않는 한, 상반절에서 바울은 구제하는 일에 성실하지 못하고 누를 끼치는 그러한 집사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하반절에서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보는 데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런 구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자들 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급되었듯이 과부들을 들 수 있다(딤전 5:9-10). 여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 이외에 어떤 다른 공적인 직분을 지닐 수 없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받아들인다면, 두 종류의 일을 하는 집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 관한 교회의 사역을 관여하고 집행하는 집사와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도우고 돌보는 일을 하는 집사이다.<sup>33)</sup>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양면적 집사직에 관한 교리의 기원에 관해 주로 두 종류의 설명이 있어 왔는데 그것의 하나는 제도적인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신학적인 설명이다.<sup>34)</sup> 제도적인 해석에 의하면 칼빈은 1537-1539년 사이에 양면적 집사직이 제네바시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운용된 사례를 직접 보게 되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칼빈은 집사직에 관한 개념을 발전 시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칼빈의 집사직에 관한 교리는 제도적으로 운영된 실제사례에 의해 크게 영

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의 대표적 학자는 킹던교수인데 그는 무엇보다 1536년 기독교 강요 첫판과 1539년판과는 달리, 집사직을 설명하면서 롬 12:8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킹던교수는 해석하기를 칼빈은 종합구호원을 운영했던 자원봉사원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구호원을 감독하였던 관리집사들과도 깊은 유대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이같이 제도적으로 실시되었던 당시의 일들과, 관계했던 사람들에 접촉을 통한 그 자신의 경험이 양면적 집사직의 교리에 좋은 모델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킹던교수는 계속해서 주장하기를, 이러한 실제적인 목격과 경험이 있는 그 다음에 칼빈은 롬 12:8에서 그의 양면적 집사직의 견해를 뒷받침해줄만한 좋은 성경구절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마침내 칼빈은 그의 양면적 집사직의 교리를 발전시켜 1539년 판 기독교 강요에 집어넣게 되었다는 것이다.<sup>35)</sup>

신학적 설명에 대해 간략하게 말한다면, 칼빈의 집사직의 양면적 교리는 집사직에 관련된 성경의 귀절들을 신학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나왔다는 것이다. 이 입장의 가장 대표적인 현대학자는 앤씨 맥키교수인데, 그녀는 주장하기를 칼빈은 제네바에 선재했던 예를 보고 난 뒤 힌트를 얻어 뒤에 양면적 집사직에 관한 교리를 발전시킨게 아니라, 일관되게 신학적 해석을 통하여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다만 시기적으로 늦게 이 교리가 문서화되어 나온 것은 칼빈이 로마서 주석을 쓰는 가운데 롬 16장에 나오는 여집사문제를 함께 다루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놓다보니 늦게 된 것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의 양면적 집사직에 관한 교리는 사회적인 영향을 받은게 아니라 그의 철저한 신학적 작업의 결과로 나온 것이다.<sup>36)</sup>

맥키교수에 따르면 칼빈은 자신을 행해야 하는 의무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 드려야 하는 두 가지 봉사의 둘째 측면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직접적인 자선을 베푸는 행위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집사직의 기원에 대해 어떤 견해가 더 설득력을 지니는 것인가를 논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교회사학자들의 역사문화학적인 검토와 신학자들이 연구해야 할 중요한 주제이지만 본 논문의 주요 관심은 아니기에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집사직에 관한 논의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을 통해 칼빈의 집사의 직무에 대한 교리가 사회복지 혹은 가난구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 C. 프랑스인 난민보호소(Bourse Francaise)

종교개혁의 확산의 결과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 망명자들이 제네바로 이주함에 따라 제네바의 인구는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1550년에서 1660년의 제네바시의 약 13,100명에서 21,400명으로 거의 60%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중에 특히 박해가 심한 프랑스에서 많은 개신교도들이 넘어 오게 되었다. 사실 종합구호원은 일차적으로 제네바인들을 대상으로 빈민구호 활동을 하는 기관이었고 피난민들을 이차적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제네바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그들을 다 수용하고 돌보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외국에서 피난해온 피난민들과 망명자들을 전담해서 돌볼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졌다.

프랑스인 난민구호소는 이 특별한 일을 위해 설립되어진 기관이었다. 이기구는 일차적으로 프랑스인들을 수용하기 위한 기관이었으나 그외에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등에서 온 난민들도 받아 들였다.<sup>37)</sup> 이 기관의 운영을 위한 자금은 여러 종류의 계층들로부터 기부금 형식으로 조달되었는데 그중에는 피난민과 망명객들 중의 부자들도 여기에 속하기도 했다.<sup>38)</sup>

종합구호원과는 달리 프랑스 난민기구는 사설기관이었다. 이기관은 자금을 기부한 사람들이 선출한 집사들에 의해 운영되어졌다. 집사 이외에 기금을 모으고 거두는 사람, 관리회계사들이 자원적으로 봉사하였고, 그외에 의사, 약사들이 유급직으로 봉사하였다.<sup>39)</sup> 사실 이 파난민들 가운데에서 성직자들도 많이 있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사는 그의 생애동안 프랑스 난민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칼빈은 정기적으로 이 기관의 운영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또 모임들에 참석하였다. 칼빈은 정기적으로 그 기관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소위 기부자(donor)로 살았다.<sup>40)</sup> 칼빈이 종합구호원의 유지와 운영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실제적인 영향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가난한 피난민들을 위한 이 기구의 운영에 있어서는 매우 눈에 두드러지도록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관여하였다.<sup>41)</sup>

### D. 사치금지법(Sumptuary Laws)

칼빈의 가난의 신학이라든지 또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그의 실제적인 사역에서 사치금지법만큼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없을 것이다.

사치금지법은 법을 통하여 개인의 사적인 행동까지 규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도덕적 행위, 정신적 의무를 강조하여 사회 공공복지와 같은 여러 다른 영역에서의 개인의 윤리와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윤리성을 부각시켜 개인의 행동을 사회적 차원으로 해석하여 법적으로 윤리적 책임성을 묻고 지나친 자유를 법령으로 규제하려고

한 것이다.

이 사치금지법은 공공의 복리와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차원에서 실제로 시행되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 빈곤을 추방하고 퇴치하려는 목적과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칼빈은 제네바시의 위정자들이 시민들이 경제적인 파탄을 맞지 않도록 보호하고 미리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생각했다. 그러므로 이 법은 부자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되고 경제적으로 끄떡하게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들의 삶을 미리 보호하고자 하는 예방책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치금지법은 1558년 실제로 제네바시 평의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되었는데 우선 제일 먼저 의복과 음식에 관한 규제부터 시작되었다. 지나치게 옷을 많이 산다는지, 화려한 옷을 입는다는지 또는 음식을 과도하게 장만하고 먹는다는지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졌다. 예를 들자면 비록 잔치라 하더라도 3가지 코스이상이 나오는 대정식이라든지, 한 코스에 주요 요리가 4개 이상 나오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간주되어졌다.<sup>42)</sup>

칼빈은 개인들이 근검절약하면서 사는 것이 공공의 삶을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일임을 역설하였다. 그는 주장하기를 부자들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의기가 소침해 지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은 사회적인 위화감을 조장하고 결국에는 공공의 삶을 붕괴하기에 이르는 심각한 위해요소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칼빈은 사치에 대해 쓴, 탈고되지 못한 글에서, “만약 부자들이 개인적인 근검절약의 정신을 익히고 배웠더라면 결코 사회적으로 사치풍조를 조장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sup>43)</sup> 개인들이 겸소하게 사는 일은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놓여 있는 사회적인 격차와 위화감을 줄이고 해소할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이익과 시민의 부를 중대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이 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을 주장했고 또 그것을 시행했다.

위에서 본 바대로 칼빈은 가난한 자들에게 깊은 애정을 갖고서 둘보고 관심을 기울였으며,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돋고 가난을 퇴치하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노력하고 실제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해 나갔었다.

#### IV. 결론적 고찰

제네바에서의 가난을 위한 칼빈의 공적인 봉사는 그의 가난한 자에 대한 신학과 일관되게 시행되었다. 무엇보다도 칼빈에게 있어서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교적인 이웃사랑의 정신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형제애와 연대의식이 가난구제를 위한 그의 실제적인 노력으로 이어졌고, 이것은 바로 제도화, 법률화를 통해 그의 신학적 신념을 실현시키는 대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칼빈의 실제적인 사역에 대한 비판도 적잖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사치금지법 같은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즉 이 법은 독재주의 시대에나 가능할 정도로 강압적이라는 것이다. 사실 칼빈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엄격한 율법주의자가 결코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 즉 가난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행동에 묻어 있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생활과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해서라도 보다 많은 사람이 사회적 복지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 칼빈은 부자들의 지나친 행위에 대해 재재를 가하고 이 사치금지법을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가르침과 그의 강도높은 설교에 비하여, 그의 행 2: 41~44과 행 4: 34의 해석은 다소 보수적인 면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구절에 대한 그의 해석을 통해 볼 때, 설교가로서의 칼빈이 아닌 실제적 행정가로서의 칼빈은 기독교공산주의와 자본주의적 개인주의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으로서의 일면도 보게 된다.

어쨌든 칼빈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법령을 무엇보다 사랑의 법,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결하여 집행할려고 한 대표적인 신학자요 위정자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인간들의 결속관계에 대한 강조와, 이웃사랑의 표현으로서 확립되어져야 할 기독교 사회윤리와 경제윤리에 대한 칼빈의 고양된 강조의 톤을 생각해 볼 때, 칼빈주의는 단순히 개인의 성결과 성화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데만 강조를 두는 사상과 신학이 아니라 “교회와 국가를 재구성하고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깊이 파고 들어감으로 사회를 개혁시키고 새롭게 함으로 교회와 국가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능동적이고 실제적인 신학이요, 윤리운동인 것임을 깨닫게 된다.<sup>44)</sup>

이러한 칼빈의 신학과 실제적인 사역에 대한 짧은 연구의 결론적 목상으로 칼빈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우리 한국의 장로교인들을 비롯한 개혁주의 신학을 물려받은 교단과 교인들은 한번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또 그것에 부딪혀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과연 칼빈의 신학적, 실천적 유산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는가?” “우리가 단순히 투울입이라고 불리어지는 5대교리를 암송하거나 예정론과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칼빈주의자로 자처하기에 충분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에 참으로 정의가 세워지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 즉 사회적, 정치적인 정의, 경제적인 정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칼빈주의자라고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이제까지의 칼빈의 가난의 신학과 사역에 대한 연구의 결론으로 우리는 한국의 장로교회와 관련하여 윤리적 목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한국교회는 물질적이고 숫적인 면에서 급속히 성장하였다. 이제 한국땅 어디를 가더라도 어렵잖게 대형교회의 건물들과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교인들은 열심히 현금을 내고 그것으로 많은 교회들이 교회당을 건축하고 확장하는데 엄청난 정력과 재정을 투자하였고 그 결과 눈에 두드러질 만한 성과를 나타내었다. 긍정적이고 우호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한다고 하면, 교회가 교인들끼리의 ‘코이노니아’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배려를 기울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교회가 사회를 향한 자신의 ‘봉사의 기능’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히 하고 무시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70년대와 80년대초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한국장로교회가 한국에 피난온 베트남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하고 도우려고 애썼던가? 가난한 자를 돌아 보기 위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자했는가? 과연 한국교회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의에 얼마나 민감했던가? 솔직히 말한다면 한국교회는 이러한 점에 매우 적은 관심만 가지거나 전혀 가지지 아니했었고 그나마 이러한 관심은 소위 진보주의 교회의 전담물이었다.

80년대 말과 90년대에 이르러서 한국교회는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씩 눈이 뜨이기 시작하여 기아로 죽어 가는 불쌍한 아프리카의 기아민들을 위해, 방글라데시의 재해민들을 위해 도움을 베풀기 시작하게 되어 무척 다행한 일로 생각한다.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이러한 운동이 기독교윤리운동의 일환으로 계몽되어지고 앞으로 더욱 조직적으로 실천되고 확산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교회는 교회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과 차원에 비해 사회봉사와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에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의 유산을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고신교단은 한번 이 면에 있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는 개혁신학이 신학적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실천으로 나아가야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짊주림처럼 비참한 일은 인간사에 더 없는 일인진데,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적인 차원에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차원을 통해서도, 교단적인 차원에서 절대기아와 빈곤을 퇴치하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돋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만약 한국의 장로교회들이 사회복지나 인간의 생존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사회적인 정치와 구조의 불의에 관해 침묵한다면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참된 의미에서 “칼빈주의적 교회”라고 불리워질 자격이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의 정의를 신장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돋고, 아울러 사회복지를 위하는 면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온 것을 부인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한국교회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변화에도 관심을 두고 정열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칼빈의 원래의 정신을 회복하고 돌아켜야 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런 실천적인 면을 위해서도 칼빈의 신학사상과 정신을 유산으로 갖고 있는 개혁주의 교회들은, 서구의 교회이든 한국의 교회이든, 칼빈의 신학과 사역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에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BIBLIOGRAPHY

- Battles, Ford Lewis. "Against Luxury and License in Geneva: A Forgotten Fragment of Calvin." *Interpretation* 19 (Jan., 1965): 182 - 202
- Bouwsma, William J. *John Calvin: A Sixteenth-Century Portra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 Calvin, John. *Commentary on a Harmony of the Evangelists, Matthew, Mark, and Luke* Vol 2. Trans. Williams Pringle,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56.
- ..... *Commentary upon the Acts of the Apostles* Vol. 1. Trans. Christopher Fetherstone. Ed. Henry Berveridge. Grand Rapids: Wm.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7.
- ..... *Commentaries on The Four Last Books of Moses* Vol 2. Trans. Charles William Bingham.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0
- ..... *The Second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and the Epistles to Timotheus, Titus and Philemon*s. Trans. T. A. Smail Ed. David. W.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Edinburgh: Oliver and Boyd, 1964.
- .....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Trans. and Intro. and Notes by J.K. S. Reid.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XXII.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 .....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XX and XXI.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 Gamble, Richard. "Mercy Ministries in European Cities During the Reformation." *Urban Mission* 6 (Sep. 1988): 27 - 31.

Gingerich, Barbara Nelson. "Poverty and the Gospel: Two Reformation Perspectives." *The Mennonite Quarterly Review* 59 (Jul. 1985): 248 - 267.

Graham, W. Fred.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and His Socio-Economic Impact*. Atlanta: John Knox Press, 1971.

Harkness, Georgia. *John Calvin: The Man and His Ethics*.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1931

Innes, William C. *Social Concern in Calvin's Geneva*. Allison Park, Pennsylvania: Pickwick Publications, 1983.

Kingdon, Robert M. "Calvin's Ideas About the Diaconate: Social or Theological in Origin." *Piety, Politics, and Ethics: Reformation Studies in Honor of George Wolfgang Forell*, Ed. Carter Lindberg. Kirksville, Missouri: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Inc., 1984.

..... "Scoial Welfare in Calvin's Geneva." *American Historical Review*. 59(Feb., 1971): 50-69.

Lindberg, Carter. 'There Should Be No Beggars Among Christians': Darlstadt, Luther, and the Origin of Protestant poor Relief." *Church History* 46/3 (1977): 313-334.

McKee, Elsie Anne. "Calvin's Exegesis of Romans 12: 8 - Social, Accidental, Or Theological?" *Calvin Theological Journal* 23(Apl. 1988): 6-18.

McKee, Elsie Anne. "John Calvin o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 Ph. D. Dissertation.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1982.

McNeill, John T. "John Calvin: Doctor Ecclesiae."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Ed. Donald K. McKim.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Mouw, Richard J. "Toward an Evangelical Theology of Poverty," in *Christian Faith and Practice in the Modern World*. Ed. Mark A. Noll and David F. Well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 Co., 1988).

Olson Jeannine E. *Calvin and Social Welfare: Deacons and the Bourse Francaise*. London: Associated University Press, 1989.

Scholl, Hans. "The Church and the Poor in the Reformed Tradition." *The Ecumenical Review* 32 (1980): 236-256.

Stackhouse, Max L. "Protestantism and Poverty". *The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 ed. Richaed John Neuhau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8.

Tawney, R. H.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New York: Mentor Book, 1953.

Wallace, Ronald S.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Grand Rapids: Wm. B. Eerdmams Publishing Company, 1959.

Wolterstorff, Nicholas.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Grand Rapids: Wm.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3.

..... "The Wounds of God: Calvin's Theology of Social Injustice." *The Reformed Journal*. 37(Jun.1987): 14-22.

• 각 주 •

- 1) Richard J. Mouw, "Toward an Evangelical Theology of Poverty" in *Christian Faith and Practice in the Modern world* ed. Mark A. Noll and David F. Well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 Co., 1988), pp.210~219
- 2) Max L. Stackhouse, "Protestantism and Poverty" in *The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 ed. Ricahrd John Neuhau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8), p.1
- 3)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and trans.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II, xii, 6.
- 4) Nicholas Wolterstorff,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 Co., 1983), p.78
- 5) Ronald S. Wallace,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London: Oliver and Boyd, 1959), p.149.
- 6) Wolterstorff, "The Wounds of God: Calvin's Theology of Social Injustice" in *The Reformed Journal* 37(June, 1987): 18.
- 7) Calvin, *Commentary on a Harmony of the Evangelist Matthew, Mark and Luke* trans. Williams Pringle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 Co., 1956), I : 304
- 8) Wolterstorff, *Until peace and Justice Embrace*, p.78.
- 9) John, T. McNeill, "John Calvin: Doctor Ecclesiae" in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ed. Donald K. NcKim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p.18
- 10) 요 12:8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 11) Hans Sholl교수는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방법" 또는 "하나님의 신비"로 일컫는다. Hans Sholl, "The Church and the Poor in the Reformed Tradition" in *The Ecumenical Review* 32 (1980): 224.
- 12) *Calvin Opera*, xxvii, 338, W. Fred Graham,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and His Socio-Economic Impact* (Atlanta: John Knox Press, 1971), p.67에서 재인용.
- 13) *Calvin Opera* xxxvii 338, Hans Sholl, "The Church and the Poor in the Reformed Tradition", pp.244~245에서 재인용.
- 14) Carter Lindberg, "There Should be No Beggars among Christians: Karlstadt, Luther and the Origins of Protestant Poor Relief" in *Church History* 46/3(1977): 317~318.
- 15) R. H. Tawney,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New York: A Mentor Book, 1938), p.101.
- 16) William J. Bouwsma, *John Calvin: A Sixteen-Century Portra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38), p.202.
- 17) Graham,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p.71.
- 18) John Calvin, *The Second Epistle of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and the Epistles to Timothy, Titus and Philemon* trans. T. A. Smail and ed. D. W. Torrance and T. T. Torrance (Edinburgh: Oliver and Boyd, 1964), p.114.
- 19)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II, vii, 7.
- 20) Barbara Nelson Gingerich, "Poverty and the Gospel: Two Reformation Perspectives" in *Mennonite Quarterly Review* 59 (July, 1985): 262. 이 논문은 문현자료면에서 가치있고 귀중한 글이다. 이 글은 특히 칼빈과 후터리안의 죄론, 구원론, 성결관, 그리고 사회질서에 대한 견해를 비교하는데 총점을 맞추고 있다.

- 21) Calvin, *Commentary on a Harmony of the Evangelists, Matthew, Mark, and Luke* II trans. William Pringle(Wm. B. Eerdman's Pub. Co., 1949), p.399.
- 22) Calvin, *Commentary upon the Acts of the Apostles* Vol. 1, trans C. Fetherstone and ed. by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 Co., 1957), p.131.
- 23)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V,xx, 13.
- 24) Robert M. Kingdon, "Social Welfare in Galvin's Geneva" in *American Historical Review* 76 no.1 (Feb., 1971): 52.
- 25) Ibid.
- 26) Graham, p.102.
- 27) Calvin, *Theological Treatises*(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p. 65
- 28) Graham, op. cit., p.104.
- 29) Kingdon, " Social Welfare in Calvin's Geneva ", p.58.
- 30) Andre Bieler,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trans. by P. T. Furhmann (Richmond: John Knox Press, 1959), p.38.
- 31) Ibid.
- 32) Robert M. Kingdon, "Calvin's Ideas About the Diaconate: Social or Theological in Origin?" in *Piety, Politics, and Ethics* ed. Carter Lindberg (Kirksville, Mo.: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Inc., 1984), p.167.
- 33)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V, iii, 9.
- 34) Kingdon, "Calvin's Ideas About the Diaconate" pp.168~179. Kingdon교수가 첫 번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라면 이 분야에 박사학위 논문을 쓴 Elsie Anne McKee교수는 두번째 입장을 지닌 학자들 중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 35) Ibid., pp.176~179.
- 36) Elsie Anne McKee, "Calvin's Exegesis of Romans 12:8—Social, Accidental, Or Theological?" in *Calvin Theological Journal* 23 ( April, 1988): 17.
- 37) Richard C. Gamble, "Mercy Ministries in European Cities During the Reformation", *Urban Mission* 6 (September, 1988): 29.
- 38) Elsie Anne McKee, "John Calvin o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 (Ph. D. Dissertation,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p.134.
- 39) Jeannine E.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Deacons and the Bourse Francaise* (London: Associated University Press, 1989), pp.96~106.
- 40) William C. Innes, *Social Concern In Calvin's Geneva* (Allison Park, Pa: Pickwick Publication, 1883), p.215.
- 41) McKee, "John Calvin o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 p.138.
- 42) Graham,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p.110.
- 43) John Calvin, *De Luxu*, p.206, quoted with trans. by Ford Lewis Battles, "Against Luxury and License in Geneva", in *Interpretation* 19 (Jan, 1965): 195.
- 44) R. H. Tawney,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New York: Mentor Books, 1953), p.91.